

남원시 곤충산업, 바이오로 확장

가능성 단백질·키토산·항산화 물질
식품, 의약·화장품·친환경 소재 등
세계 시장서 성장 가능성 평가
농가 참여 모델 등 단계적 추진

남원시가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곤충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있다.

남원시는 곤충을 활용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통해 농업의 한계를 넘어선 고부가가치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곤충은 기능성 단백질, 키토산(곤충 키틴 유래), 항균·항산화 물질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미래 바이오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품과 사료는 물론 의약품, 화장품, 친환경 소재 등 활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며 세계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평가된다.

시는 곤충의 가치를 단순 사육에 그치지 않고 바이오 소재 개발과 산업화로 확장해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곤충 사육·가공 기반 조성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 ▲기업 유치 및 창업 지



남원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남원시 곤충산업가공센터' 조감도.

원 ▲농가 참여형 산업 모델 구축 등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한 후 내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단계에서는 지역 내 농가로 구성된 남원시 곤충산업 민관협의체와 국립농업과학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원광대 및 기업체 등 산·학·관·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밑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곤충산업은 기후 위기와 식량 문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며 "정정 환경과 농생명 인프라를 바탕으로 곤충과 바이오를 결합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사육 중심 산업이 아닌, 연구·가공·유통·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곤충바이오산업을 남원의 대표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내겠다"라며 "청년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수박·복분자·고추

농업인 실용 교육

고창군, 다음 달 3일부터 10일간

고창군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다음 달 3일부터 열흘간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읍·면 주민행복센터, 농협 교육장 등이다.

강의는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사와 외부 전문가 등이 맡을 예정이다. 교육 주요 내용은 ▲읍·면별 특화 품목 교육 ▲고품질 배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공익직불 농업인 의무교육 등이다.

군은 특히 수박, 복분자, 고추 등 각 읍·면 특화 작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농업경영인의 소득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 관련된 세부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영농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베트남 유학생 유치·교류 '물꼬'

하노이 등 대학·고교 방문...단기 연수 등 교류 프로그램 구축 협의



지난 22일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열린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STEM·AI·로보틱스 적용' 교육포럼에서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가 소개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최근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유학생 유치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이어진 방문 기간 시는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의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설립 취지와 글로벌커머스학과, 한국어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등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과를 소개하고 단기연수, 문화교류체험, 동아리교류 등 정례적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구축을 협의했다.

22일에는 베트남에서 열린 '교수·학습 활동에서

의 STEM·AI·로보틱스 적용' 교육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방문단은 포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사례와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남원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제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공유했다.

시는 향후 행복기숙사 조성과 도심 내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국제교류 인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출신 대학 신입생에 장학금 100만원

정읍시민장학재단,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 정진과 학부부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지역 출신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올해 관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지난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대신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의 구직지원금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학생 본인을 포함한 부모 중 1인 이상이 지난 2024년 12월29일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재단에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월27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신청은 올해 말까지 정읍시민장학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에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과거 주소변동 사항과 세대 구성원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대학 합격 통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부모의 주소가 다르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각각의 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인 이학수 정읍시장은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15억 투입 경로당 362곳 개보수

정읍시가 지역 노인을 위해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경로당 362개소의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한 경로당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은 경로당 1개소 신축 및 개보수 182개소와 함께 에어컨,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과 비품의 기능 보강 179개소 등이 있다.

시는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선정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고 읍·면·동 단위의 수요 조사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을 확정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을 취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개보수하고 있는 지역 내 경로당.

고창 청년 동아리에 최대 200만원 활동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2026년 고창군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들은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은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 취·창업 역량 강화, 문화·예술 활동 등 동아리 특성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이 관내에 있는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동아리 구성원 중 60% 이상이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를 뒀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동아리는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3층 청년창업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고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사·공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다. 군은 동아리 구성 규모, 활동 지속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5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군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온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역 활동으로 연결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